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5월 10일 (제79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밥상머리 교육

유대인은 식사시간마다 유대인의 지혜를 총망라해 놓은 탈무드에 대해 토론하는데, 더욱이 토요일에는 음식점과 유원지, 공공기관 마저 거의 문을 닫아 온 가족이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그것이 세계 경제를, 노벨상을 휩쓰는 숨은 비결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이자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는 자신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아버지의 밥상머리 교육을 꼽았다.

밥상머리 교육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함께 식사하는 시간에 이뤄지는 교육이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경제성장을 했지만, 반면 귀하고 값진 것들을 참 많이 잃었다. 그 중의 하나가 사람의 도리, 예의다. 부모들이 너무 바빠서 모든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맡겼다. 그러나 학교와 학원이 인성까지 교육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위아래도 없는 세상,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 진실과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이 되었다. 요즘 대학생이 된 자녀와 아빠가 함께 하는 TV프로그램이 있다. 그런데 이 부녀간에 할 말이 없어 난감하고, 같이 있는 것조차 어색해한다. 아빠가 너무 바빠서 함께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 우선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다 식당에 앉은 가족들을 보면 다들 각자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개선해야 한다. 밥상에서 서로 함께 얼굴을 대하고, 하루의 일과를 얘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점차 부모의 인생경험담, 산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밥상머리 교육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가정은 최초의 교육기관이자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가정의 달인 5월, 식탁에서 대화를 시작해 봄이 어떨까.

한 사람의 생각이 역사를 발전시킨다

말로만 들던 파나마(Panama) 운하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력과 역사의 진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이집트(Egypt)의 수에즈(Suez) 운하나 파나마 운하가 없던 시절, 인간들은 대륙 간 이동을 위해 멀고 먼 바다를 돌아야 했다. 대서양이나 지중해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려면 아프리카(Africa) 남단까지 돌아야 했고, 대서양에서 태평양, 또한 그 반대로 다니려면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야 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발상에서 비롯된 대운하의 역사는 인류역사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왔다. 지중해에서 홍해로 이어지는 수에즈 운하나 태평양과 대서양의 멕시코(Mexico) 만으로 이어지는

목사님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대운하공사가 인류역사의 진보에 기여한 사실을 인상적으로 역설하셨다.

“한 사람의 위대한 생각이 낳은 위대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운하건설에 수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희생이 없이 어찌 단 열매를 따겠는가? 우리는 위대한 생각을 품어야 한다. 육지를 뚫어 바다를 잇는다는 크고 놀라운 상상력이 인류역사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보고, 듣고, 깨닫는 귀중한 역사 아닌가!”

파나마 운하를 뚫기까지 인간이 들인 고통과 희생은 실로 막대했다. 밀림지역을 뚫고 이루어진 대운하공사에는 말라리

“내 목회성공의 기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나는 30년 전, 단 한 명의 성도를 놓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오늘은 바로 지극히 작은 성도 하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10명, 20명이 있든지, 천명, 만명, 십만 명이 있든지 동일한 자세로 기도에 전무하며 헌신을 다한 결과입니다. 나는 지금도 집회를 위해 하루 7, 8시간을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의 그런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파나마의 수로 파나마시티 집회 광경

파나마 운하는 물류이동의 시간과 비용에 엄청난 절감을 가져왔다. 파나마 운하를 예로 들면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 지역까지 40일이 넘게 걸리던 것을 25일로 단축하였다. 10시간을 걸려 통과되는 파나마 운하가 무려 20여 일의 물류이동 시간 및 막대한 경비를 절감시켜준 것이다. 파나마 도착 후, 공항 귀빈실에서 우리를 영접한 마누엘(Manuel A. Ruiz, 84세) 목사는 먼저 파나마 운하 견학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튿날, 파나마 경찰의 네 번째 서열에 있는 막시모(Maximo Ruiz) 경호대장이 직접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안내하여 파나마 운하를 견학했다.

아, 황열병을 비롯한 풍토병,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1880년 프랑스가 시작한 이래 미국이 이어받아 1914년에 완공하기까지 약 27,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그러나 이 대역사의 결과, 인류는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 바다와 바다를 잇는 운하건설의 상상력이 낳은 쾌거라 할 것이다.

파나마 운하의 감격을 안은 채, 우리는 오전 세미나와 저녁 집회 일정을 계속했다. 목사님은 세미나를 통하여 목회성공뿐 아니라 모든 성공의 밑거름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부지런한 자세임을 강조하셨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였고, 목사님의 강의에 ‘이런 말씀은 도무지 처음 들어본다, 목사님이 파나마에 자주 오셔야 한다’며 거듭 사의를 표했다.

마누엘 목사의 ‘믿음의 성소’ 교회에서 진행된 첫날 집회에는 성도들로 가득 찬 가운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대역사로 시작되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아메리카의 중심 파나마에 성령의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었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난 파나마시티 집회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



막시모 경호대장(목사님 좌측)이 이끄는 경찰경호대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2:20~26)



삶으로 믿음을 확증하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명령하는데 효력이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원인이 있을 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한 직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군사를 모집하여 블레셋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졸지에 4천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급히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겨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 적진을 향해 돌진한 이스라엘은 더욱 크게 블레셋에게 참패하였음은 물론이고 법궤까지 빼앗겼으며, 이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만 앉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며,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던 중 죽음을 맞습니다.

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했을 까요? 법궤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요, 하나님의 능력이 현현하는 능력의 궤이건만 왜 패배했을까요? 사무엘상 5장에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 있을 때 법궤가 그들의 신, 다곤을 두 차례나 넘어뜨렸는데, 왜 그때는 잠잠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상은 행한 대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행실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이를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해서 먼저 먹었습니다. 한 마디로 불량배였습니다(삼상2:12~17).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궤만 모시고 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이지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다 나가는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 다 되는 줄 압니다. No.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법궤만 메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듯, 다 귀신이 나가고 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

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홉니와 비느하스 같이 불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량배와 동류가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삶 자체가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병든 자에게 대면 병이 나았다고 했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같은 장 14절에

보 니 까 제 사 장 스게와의 일 곱 아들도 바울처럼 해봤지만 됐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분명히 능력이지만 나타날 만 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전에 왔으니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렘7:12~13). 착각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렘7:20).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막힌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비

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열 처녀 모두 똑같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줄 알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말씀은 결국 “그런즉 깨어 있으라”(마25:13)로 귀결되는데, 믿음은 있으나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으니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

다가 그대로 내놓으 니 주인이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1 달란

트 받은 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

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마25:24~25). 이 역시 착각한 겁니다. 이는 자기 믿음하나 지키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영혼구원을 위해 가르치고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선 모든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영생에, 왼편의 사람은 영벌에 처했습니다. 이유인즉 불쌍하고 힘든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불쌍한 자, 옥에 있는 자를 돌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를 만난 자는 가난한 자를 돌고 불쌍한 자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1달란트

를 땅에 묻은 종, 주님의 왼편에 선 자들이 우리가 아니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착각하며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별 탈 없이 천국 가겠지’ 하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가는 것이지, 직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구원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비참하다

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듯이(롬5:8),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했듯이(약2:21~22),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믿음을 확증했듯이(수2), 우리도 삶 속에서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영적 예배요,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바울의 삶을 보세요. 욕의 삶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교회 밖의 삶에서 예수가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엡4:1~3). 바로 예수중심의 삶 말입니다.

지금의 삶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착각 속에 살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서야 착각인 줄 깨닫게 되면 그 때는 너무 늦고,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믿음을 확증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자녀 사랑

한 아버지가 다섯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섯 아들 중 한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하여 형제들 속에서조차 주눅이 들어있기에 아버지는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다섯 그루의 나무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아들에게 한 그루씩 나누어 주며 1년 동안 잘 기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잘 키운 나무의 주인에게는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1년 후, 아버지는 아들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속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하여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주인은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였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안이 병병하여 무엇을 요구할지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칭찬하기를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른 모든 아들들 앞에서 공표하였습니다. 명분 있는 칭찬과 성원을 한 몸에 받은 그 아들은 성취감이 고조되고 꿈에 부풀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얗게 밝을 지낸 새벽에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맙고 신통하기도 하여 숲으로 갔습니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 그의 나무 주변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그의 나무 주위에서 물 조리개를 들고 열심히 그의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성원이 나약하고 어수룩한 사람을 강하고 현명하도록 만들어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보내는 대통령으로 변화 발전시킨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상하지는 않지만 강하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강렬하게 투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자상하고 아름다워 그 정도나 깊이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방식에 따라 자녀들의 인생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 헌신하여도, 자녀를 버릇없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키워들면, 결국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훈계하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믿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 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혜와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 오월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자녀는 부모를 위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서...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세상이 아닌 믿음으로!

모 기업 회장이 정치권 로비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생전에 국회의원도 했었고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과 교분을 맺어왔다. 그는 자살하기 전 녹취록에서 기업인이니까 정치인 후원이나 정치적인 보함을 든다는 차원에서, 또는 성의 표시 차원에서 뇌물을 주었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가 정치적인 공세로 수세에 몰려자 뇌물을 줬었던 권력자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 같이 잘되어 보자며 그가 후원한 ‘성의’가 무색하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당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권력자들에게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었을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마6:33~34). 그는 스스로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고, 끝까지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 못했

기에 끝이 좋지 못했다. 각자의 의는 서로 달라서 충돌하기 마련이라 어찌 보면 버림받은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조금의 치우침도 없이 완전한 판단을 하심(시9:8)으로 하나님의 의를 좇으면 생명을 얻는다.

세상적인 삶은 스스로를 채우려 발버둥치는 삶, 신자들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삼상2:1~10)만이 믿음과 맡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 주심을 믿고, 자신의 판단이나 의를 먼저 세우기 이전에 기도와 수용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의 방식은 버리고 말이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To be Succeed::

소통의 힘

각종 자격증과 시험 성적, 학벌이 중요시되던 예전과는 달리 오늘날 취업과 승진의 문턱을 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 중의 하나가 발표 능력, 즉 프리젠테이션 능력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말하기 능력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선진국 그룹인 G8 국가들에서는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독서와 토론 교육에 중점을 두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대개는 막힘없이, 끊김 없이 청산유수로 말할 때 ‘그 사람 말 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단지 그것에만 국한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됨됨이를 짐작하게 하고 그가 가진 지식과 통찰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며, 이 모든 것이 모여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열고 닫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 대화와 소통에 능한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유재석 씨는 말 잘하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말 잘하는 이로 인정받는 주된 이유는 바로 ‘경

청 능력’이다. 그는 대화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상대방과 눈을 맞추어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며, 맞장구 쳐줄 뿐이다. 상대를 향한 진심어린 관심,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성실한 열의와 공감하는 제스처만으로도 그와 함께 대화하는 이들을 무장해제 시키기에 충분하다. ‘귀는 두 개요 입이 하나인 것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라는 탈무드의 격언을 잘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이룩한 칭기즈칸을 보라. 역사의 일부를 굽적하게 수놓은 그는 놀랍게도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 그런 그가 “내 귀가 나의 훌륭한 스승이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자신이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심사숙고하여 순간순간 최선의 결정을 했고, 나아가 그것이 최고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혹자는 조직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할 때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듣는 것으로 끝내라’고 말할 만큼 많이 듣고 적게, 그리고 짧게 말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

면 조직에 활력이 생기고 직원들은 리더를 존경하며 나아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유재석씨 성공 요인의 마무리 투수는 바로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엿보이는 ‘진정성과 겸손함’이다. 동료 연예인들에 의하면 9년간의 무명 생활을 겪은 그는 스타가 된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 매우 힘쓰며, ‘귀를 흘리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고 자기 자신과 약속할 만큼 진솔하기 위해 철저히 애쓴다고 한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속한 조직에서 존경받는 리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열린 귀와 품는 마음, 그리고 진실한 언어로 상대방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나의 가치를 한층 빛나게 하며, 나아가 세상을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을 깨달아 실천하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잠15:23).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모 방송국의 최장수 인기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자이자 방송인 송해 씨가 얼마 전 89세 되는 생일에 자신의 삶을 조명한 평전의 출판 기념회 겸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의 평전은 일제 강점기부터 201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이르는 그의 인생 드라마를 한국 근대사와 대중 연예사를 통해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는 1988년부터 28년간 ‘전국 노래자랑’ 단독 MC를 지금까지도 맡고 있고, 이제는 90세를 바라보는 최고령 현역 방송인이기도 합니다. 황해도 재령이 고향인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내 고향에 무대를 설치하고 ‘전국 노래자랑’ 송해가 고향에 왔습니다!”라고 외치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진행하고 계신 ‘전국 노래자랑’의 후임을 누구로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후배들끼리 상의해보라고 했더니, 그 중에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와서는 내 귀에 대고 ‘언제쯤 물려주실래요?’하고 묻기에 ‘50년 후’라고 대답했지요.”

‘지금 하는 일 50년 더 하겠다’는 말은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일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니깐요.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30년 새롭게 다시 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만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하나님의 대사 마누엘 루이스



마누엘 목사와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언제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감동이 가장 벅차다. 우리가 파나마(Panama)에서 만난 그 믿음의 사람은 바로 마누엘(Manuel A. Ruiz, 84세) 목사이다. 공항 직원과 경찰경호팀의 안내로 공항귀빈실에 들어서니 한 노신사가 우리를 맞이한다. 그는 중남미의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마누엘 목사였다. 아르헨티나(Argentina)의 유명한 전도자 아나콘디아(Carlos Anacondia)의 영적 스승이기도 한 그는 많은 목회자를 길러낸 중남미의 영적 대부이다. 그는 올해로 목회 50년을 맞는다고 한다. 80중반에 들어선 고령이지만 그의 꼴뿔한 자세는 나이를 잊게 하는 건강함이 넘쳐 보였다. 목사님은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마누엘 목사를 만나게 해주신 뜻이 있다며 크게 기뻐하셨다. 마누엘 목사는 장수목회의 비결을 단적으로 말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참으로 무식하여 건강을 돌보지 않고 스트레스로 쓰러지곤 합

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몸을 돌봐야 합니다.” 지극히 단순한 진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다가 건강을 잃는다는 것이다. 오랜 비행에다 늦은 시간인지라 몹시 피곤한 상태였지만, 마누엘 목사는 호텔로비에서 50년 목회의 간증을 시작했다. 그는 30대에 파나마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각국에 파견되어 대사직 수행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이었다고 한다. 한번은 칠레(Chile)에 파견되어 나갔을 때, 칠레 전역의 교회를 돌며 복음을 전하자 한 일간지에 마누엘 파나마 대사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다. “마누엘 대사는 두 가지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는 파나마 대사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파나마 역사상 최초로 UN에 초청을 받아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 UN 포럼의 주제는 평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파나마 대사로써 UN 연설에 임했지만, 세계를 향하여 진정 평화를 원하면 교회를 핍박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전 세계에 공표한 셈이다. 그는 목사가 된 이후 각 나라를 돌며 집회를 가졌는데, 한번은 콜롬비아(Colom-

bia)의 8만 명을 수용하는 축구장에서 집회가 있었다. 머리에 총을 맞는 사고로 실명하여 유리 눈을 끼고 온 여자가 있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었는데, 잠시 후 그녀가 파나마 목사가 보인다고 소리쳤고, 그녀의 남편은 울고 있었다. 이 사건은 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미국 언론까지 취재하러 왔다고 한다. 소경이 고침을 받아 눈을 뜬다 해도 눈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모두가 놀라했다. 또 한 번은 볼리비아(Bolivia) 집회 때 일어난다. 수술로 자궁을 드러낸 한 여인이 임신을 원한다며 기도해달라고 교회로 찾아왔다. 기도해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믿음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주었다. 그러자 3개월 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젖을 짜니 젖이 나오더라. 그녀를 수술했던 의사를 비롯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크게 놀랐다. 자궁이 없는데 임신을 하다니 말이다. 그 뿐이 아니다.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졌다는 간증, 없던 이가 기도했더니 7개나 솟아났다는 간증, 누가 들으면 거짓말만 늘어놓는다고 할 이야기들이 마누엘 목사의 입에서 계속 쏟아졌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한 그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파나마 집회에 바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물이 인물을 알아본다더니 목사님은 마누엘 목사의 간증을 들으며 연신 무릎을 치며 ‘아멘’을 외치셨다. “누가 들으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눈이 없어도 보게 하시고, 자궁이 없어도 임신케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의 하나님, 금덩이가 떨어지고, 없던 이가 솟아나는 역사를 나는 100% 믿습니다. 나 또한 목회 30년 동안 말하기 힘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오늘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오랜 여정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지만, 마누엘 목사의 간증을 들으며 새 힘이 솟는다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을 뵈고 나도 목사님처럼 건강한 목회를 앞으로 30년 계속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이를 시인합니다.” 마누엘 목사도 신이 나서 계속했다. “나는 단에서 성령의 불을 던질 뿐입니다. 그 후엔 오직 성령께서 다 일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던 말씀 아닌가? 바로 목사님으로부터 누누이 들던 말씀이고 집회 때마다 목도하게 되는 일들이다. 기도, 믿음, 성령,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강조되는 단어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예수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분명한 증거들 아니겠는가.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당신의 영적 치매 지수는?

:: 성경에서 배운다::

얼마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치매환자가 100만 명 예상된다고 한다. 핸드폰이 냉장에서 나오고, 잃어버린 우산이 30개는 된다는 주변지인들의 푸념 섞인 농담이 낯드르게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자신에게 일찌감치 치매가 찾아온 건 아닌지 염려되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에 묻는 사람들이 참 많다. 건망증과 치매의 구분은 의외로 간단하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다면 건망증이지만, 열쇠를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조차 생각나지 않는다면 치매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다. 영성에도 건망증과 치매가 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간혹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민감성을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은 누구나 쉽게 찾아오지만, 다행히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영적 치매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존재인지 잊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삶의 배고픔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또한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중보자들에게조차 귀를 닫게 된다. 성경 속 사울은 새 왕이 되는 취임선서 자리에서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짐작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 겸손했던 모습을 망각한 영적 치매에 걸렸다. 훗날 그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수준이 되었고,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려는 노력대신 그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위 다윗을 질투하는데 일생을 보내다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인물이었다. 반면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실수에도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귀를 열고 회개하였고, 신하들이 반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를 억지로 강행한 이후에도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영적 건망증은 잠시 있었을지언정 치매에는 걸리지 않는 영적 체력을 유지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치매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 육체에 오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손을 많이 사용하여 손에 치밀하

게 분포된 신경들을 통해 뇌를 자극하므로 뇌가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적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동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 때 드리는 찬양과 말씀이 점점 낯가에 맴돌기만 할뿐 마음에 찰림이나 격동함이 없고, 때로 불편하고 번쩍스럽게 느껴진다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편들을 보자. 그는 왕일 때나 쫓겨 다닐 때나 심지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도 늘 자신을 점검하고 아뢰며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자극하고 있다. 다시 뛰는 30년의 시발점 위에 우리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심령이 말씀 앞에 무너지진 않았는지?’, ‘지금 내 삶의 중심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적 치매 지수를 점검하고 예방하여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자.

하인명
renming@daum.net

